

흑산도의 친척: '큰집' 과 '내롱' 을 중심으로

김창민*

이 연구는 흑산도의 한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친척을 연구한 민속지 연구이다. 연구자는 조사 마을의 친척을 통하여 친척조직의 지역적 한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친척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생태적, 경제적 조건에 대한 적응의 결과물로서 조사마을의 친척조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마을에서는 제사가 장남에게 상속되지 않고 마을에 남아 부모와 함께 생활한 아들에게 상속된다는 점이다. 조상의 신위인 기성은 '큰집'에만 모셔지기 때문에 장남이라도 분가하면 제사를 모실 수 없게 된다. 장남 분가는 연구 마을의 생태적 환경의 결과물이다. 열악한 경제환경으로 연구마을은 많은 수의 인구를 부양할 수 없어서 인구 유출 압력이 크다.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 장남 분가를 하는 것이 더 적응적이다. 이런 조건 때문에 장남은 분가하여 마을을 떠나고 남은 아들이 남아 가계를 계승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둘째, 연구마을에서는 '내롱'이라고 하는 친족조직이 중요한 사회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한 아들만 남고 나머지 아들은 분가하여 마을을 떠나는 관행으로 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친척관계는 상당히 멀다. 8촌 이내의 혈족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당내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종손이나 종가의 개념도 없어 문중이 형성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같은 파에 속한 혈족들로 구성된 '내롱'은 먼 친척을 가깝게 인식하게 하며, 친척집단이 수행해야 하는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이 논문은 2000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음.

여러 역할을 담당하는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내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제를 모시는 것이다. 문중이 없기 때문에 시제는 내용을 단위로 순환하여 모신다. 그리고 개인이 책임을 지는 제사는 점차 내용이 책임을 지는 시제로 전환되어 일찍 제사를 중단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큰집의 중요성은 줄어드는 반면 내용의 역할은 증대하고 있다.

셋째, 연구마을에서는 '작숙', '오촌'과 같이 먼 친척을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화적 장치들도 발달해 있다. 이는 '내용'이 먼 친척을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향과 같은 맥락이다. 나아가 작숙은 친척이 반드시 혈족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을에 살고 있는 혈족의 수는 적은 반면 인척의 수는 많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이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친척, 친족조직, 흑산도, 내용, 작숙.

1. 머리글

친척(Kinship)¹⁾ 연구는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영국 사회인류학자들의 아프리카 친척 연구는 친척이 정치적 단위로 기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친척이 사회구조 이해의 중요한 수단이 됨을 실증하였다. 그러나 단계혈통집단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남태평양, 중국 등의 친척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친척을 사

1) 일반적으로 Kinship은 '친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Kinship은 단계혈통집단(unilineal descent group)과 결연 관계(alliance)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반면 친족은 한국에서 부계혈통집단만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친족과 인척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친척'이 Kinship의 번역어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친척을 Kinship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자 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친족'이 Kinship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향후 학술용어의 통일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회구조로서 접근하는 연구의 가장 큰 비판점은 친척을 출계율로서만 파악했다는 점이다. 친척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고, 그 관계의 유형은 동일 혈통 뿐 아니라 혼인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친척에 대한 연구 역시 혈통집단 연구가 중심이 되어 왔다. 혈통집단은 저명한 조상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한국의 혈통집단에 대한 연구는 양반사회가 주로 대상이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양반은 유교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한국 친척에 대한 연구는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친척 연구에서도 부계혈통집단과 유교 이념으로만 설명될 수 없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제주도의 켄당은 부계친 뿐만 아니라 모계친과 처계친까지 포괄하는 범주의 성격을 가진다(김창민 1992). 제사를 적장자가 독점하여 상속하는 유교적 이념은 한국 친척구조의 핵심이라고 인식되었으나 진도(전경수 1977), 통영(유명기 1983), 제주도(최재석 1979) 등 도서 지역과 산간지역에서는 제사의 분할 상속관행이 보고되었다.²⁾

제주도 켄당의 사례는 한국에서도 친척 연구가 출계율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친척은 조상과 후손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이기도 하다. 이 관계를 만드는 유형은 혈통의 문제 뿐 아니라 혼인, 의사친척 등을 포함한다. 동일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같은 마을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는 혈통이 친척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관계의 유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혼인으로 맺어진 사회관계, 또

2) 그 외에도 쯤하(2001)는 제주도의 사례에서 제사 분할이 아닌 제사 분담의 사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제사 분담은 제사 분할과는 달리 제사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그 사람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는 의사친척관계가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다. 한편 진도, 통영, 제주도의 제사분할 사례는 제사의 적장자 상속이라는 유교적 이념이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일반화될 수 있는 원칙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출계율이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환경에 따라 적용상의 변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항목들이 친척을 구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친척을 구성하는 이러한 다양한 사회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만 친척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흑산도에 있는 한 마을의 친척을 사례 연구한 것이다. 이 마을은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어업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친척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물적인 기반이 약한 마을이라는 생태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 마을의 친척을 통하여 친척조직의 지역적 한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친척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지역의 친척조직이 만들어진 원인을 생태적, 경제적 조건 속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한 현지연구는 2000년 3월의 예비 답사와 2000년 7월과 8월 사이의 3주간에 이루어졌다.

2. 모래미 마을

이 연구의 사례 마을인 모래미는 흑산도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흑산도는 신안군에 속해 있으며 목포로부터 서쪽으로 약 57Km 정도 떨어져 있다. 목포에서 34Km 지점인 비금도를 지나면 흑산도까지는 섬이 하나도 없어서 흑산도는 낙도로 인식된다.

그러나 흑산도는 서남해 도서지방에서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적지 않다. 흑산도는 예리와 진리 그리고 읍동으로 이어지는 천연의 크고 좋은 만을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서남해안 일대의 피난항으로서 기능

해 왔다. 태풍주의보가 내리면 이 일대의 국내 어선은 물론이고 중국 어선들도 피항을 하기 때문에 북북동쪽을 향하고 있는 흑산항은 배로 가득 차게 된다. 흑산도의 횃집이나 식당에는 피난한 배로 흑산항이 가득 찬 사진이 표구되어 있고, 상점 주인들은 관광객들에게 흑산도가 어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섬인지 설명하기도 한다.

흑산도의 면적은 48평방킬로미터로 서남해 도서지방에서는 비교적 큰 섬에 속하지만 다른 섬들이 많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흑산도는 산악지형이어서 경지가 거의 없다. 섬의 가운데는 문암산, 깃대봉 등 370M를 넘는 고봉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흑산항이 있는 북북서쪽을 제외한 나머지 해안은 거의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절벽이다. 마을은 산이 바다와 만나는 부분에 만들어진 작은 계곡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섬을 돌아가면서 계곡마다 12개의 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흑산도의 모든 마을은 계곡에서 흐르는 작은 하천을 끼고 있으며, 계곡 양 비탈을 개간하여 택지와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흑산면의 가구수와 인구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1,830세대, 5,060명으로新安郡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흑산면은 크고 작은 100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유인도는 11개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한다. 흑산항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이 일부 활성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럭, 멸치, 홍어를 주어종으로 하는 어장과, 우럭과 미역을 중심으로 하는 양식업이 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모래미는 낙도인 흑산도 중에서도 가장 오지마을이다. 흑산항에서 가장 거리가 먼 두 마을 중 하나인 모래미는 남동 방향으로 난 계곡에 자리하고 있다. 계곡 앞에는 칠형제섬이라고 하는 작은 섬들이 자리하고 있어 모래미 포구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래미는 포구의 방향상 태풍의 피해를 직접 받는 마을이어서 태풍이 불 때 배가 피난을 할 수 없으며, 양식업도 할 수 없는 마을이다.

모래미 마을은 지형상 독특한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래미는

흑산도 내에서 장마철이 가장 긴 마을로 알려져 있다. 장마철에 불어 오는 남동풍은 모래미 마을이 위치한 계곡으로 불어들어 계곡 전체가 안개에 휩싸이게 된다. '모래미 사람들은 장마 덕에 얼굴이 희어진다'고 할 정도로 이 마을의 장마와 안개는 흑산도에서 유명하다. 이 기간 동안에는 해조류나 어물을 건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마을로 가서 건조할 정도로 모래미의 안개는 심하다. 또한 주민들은 모래미의 장마 기간을 '썬닷세 하루 아침'이라고 한다. 계곡에 긴 안개가 겹쳐 장마가 끝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표현한 이 말은 그만큼 장마가 길다는 뜻이며, 썬닷세 뒤에 하루 아침을 구태여 붙인 것은 그만큼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겹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겨울은 온난하다. 북서계절풍은 흑산도 중앙부의 높은 산악지대에 막혀 모래미로 바람이 넘어올 때는 온난해진다. 겨울 기간동안 온난하고 바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래미는 어느 마을보다 살기 좋게 된다. 이러한 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 걸쳐서 해야 하는 양식업은 모래미에서 할 수 없으며, 겨울에서 봄까지 이어지는 미역 양식과 겨울 어장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모래미가 위치한 계곡은 흑산도에서 가장 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물이 비교적 풍부하며, 경지 면적도 넓다. 지금보다 농업이 중요했던 과거에는 '흑산도 농산물의 절반이 모래미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모래미는 상대적으로 농지가 넓었다. 그러나 이 말은 모래미의 경지 면적 자체가 넓다기보다 흑산도의 다른 마을이 얼마나 경지가 좁은지를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말은 모래미의 영화로운 과거를 이야기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지금은 흑산항이 자리하고 있는 예리나 진리 등의 마을이 크지만, 항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여 흑산도가 상대적으로 고립되었던 시절에는 모래미가 흑산도에서 가장 힘있고 컸던 마을이라는 점이 종종 강조된다. 당시에는 운동시합이라도 하면 늘 모래미가 흑산도에서는 최강이었다는 것과 함께 농업 생산물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모래미의 영화로운 과거를 정당화 한다.

모래미의 경지는 대부분 계곡 비탈을 개간한 산전이며, 농사하기가 힘들어 점차 줄어들고 지금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아 묵혀지고 있다. 반면, 바다 자원은 대단히 풍부한 편이다. 모래미의 바다는 흑산도에서 가장 넓다. 해안은 대부분 절벽으로서 바위에 자연산 미역, 소라, 전복 등의 패류가 풍부하며, 어족도 많아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업에 종사하며, 미역을 양식하는 것과 멸치를 잡는 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모래미의 주민은 주민등록상 88세대, 182명이지만, 실제 거주 인구는 이보다 적다. 교육 때문에 육지로 나간 자녀들도 많으며, 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족 중 한 명이 나가있는 경우도 있다. 모래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육지에 보내고 생업 자체만을 위해 남아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래미에는 여러 성씨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 함양 박씨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밀양 박씨들도 다수 살고 있다. 함양 박씨들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도 하였으며 수협에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 흑산도에서는 유력한 성씨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마을에서도 유일하게 친척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다른 성씨에 비해 우월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다.

3. 제사 상속과 '큰집'

모래미에는 주민 수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의 제사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으며, 가구당 모시는 제사의 수도 많다. 2000년 여름 현지연구 당시 모래미에 살고 있는 실제 가구의 수는 75가구였다.³⁾ 이 중 17가구는 제사를 모시지 않는 가구였으며, 나

머지 58가구는 제사를 모시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58가구에서 모시는 제사의 총 수는 235이었다. 제사를 지내는 가구만 놓고 본다면 가구당 평균 4분의 제사를 모시는 셈으로서 상당히 많은 수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 셈이다. 다음의 표는 모시는 제사의 수에 따른 가구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모시는 제사의 수별 가구수

제사의 수	0	1	2	3	4	5	6	7
가구수	17	10	4	8	10	9	11	6

통상 제사를 한 분 또는 두 분 모신다는 것은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 것이며, 세 분과 네 분의 제사를 모신다는 것은 부모와 조부모까지 모시는 것이고, 5분 이상의 제사를 모신다면 증조부모대까지의 제사를 모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모래미에는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까지 모시는 가구는 14가구, 조부모까지 모시는 경우는 18가구, 증조부까지 모시는 경우는 26가구가 있다. 모래미에서는 증조부까지 제사를 모시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조부모 혹은 부모까지만 제사를 모시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제사가 모셔지고 있는 것은 모셔져야

- 3) 75가구는 모래미에서 실제로 살면서 생업을 하고 있는 가구의 수이다. 이와는 달리 모래미에 호를 두고 있는 가구는 78가구이다. 호를 두고 있다는 것은 마을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을에서 술을 걸고 밥을 해 먹어야 호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분교 교사, 보건소 직원, 교회 전도사 등은 실제 거주 가구이기는 하지만 호가 없으며, 반대로 주로 외지의 자녀 집에서 생활하기는 하지만 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사람들은 일년의 대부분을 외지에서 생활하지만 농사철에 잠깐 와서 농사일을 하며, 마을 공동재산의 권리 행사기간에는 반드시 들러 호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하는 제사가 대부분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상속되었으며, 마을에서 제사를 모시는 가구는 대부분 제사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가구임을 의미한다.

제사를 모시는 58가구 중 17가구는 장남이 아니면서도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리고 제사를 모시지 않는 17가구 중 4가구는 장남이면서도 제사를 모시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모래미에서 제사가 아들 중 한 명에게 단독으로 상속되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반드시 장남일 필요는 없음을 의미한다.

모래미 사람들이 많은 제사를 모시고 있는 것은 모래미의 제사상속 관행 때문이다. 모래미에서는 형제 서열에 의해 제사를 상속받지 않고 '큰집'을 차지한 아들이 제사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차남이면서 큰집을 차지하고 있는 조기복씨의 사례는 이러한 관행을 보여준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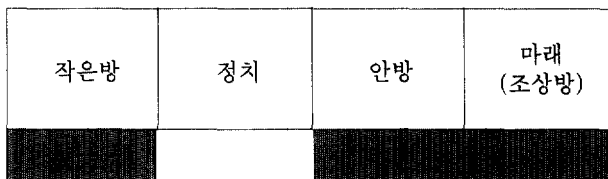
조기복씨는 3형제 중 차남이다. 형은 목포에서 상고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하였다. 형은 취직한 이래 계속 도시에서 살았으며, 결혼 후에도 직장을 따라 서울에 가서 살고 있다. 형이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니는 동안 조기복씨는 아버지를 도와 어업을 하면서 동생 공부도 시켰다. 조기복씨는 결혼 후에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어업을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살던 '큰집'에 그대로 살게 되었다. 왜냐하면 서울에 살고 있는 형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조기복씨가 이미 상당 기간동안 아버지와 함께 '큰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집을 물려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모시던 제사도 모두 물려받아 지내고 있다.

모래미에서 '큰집'을 차지한다는 것은 가계를 계승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큰집'이란 물리적으로 집이 크거나 맏아들이 사는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래미에서 큰집은 조상의 위패가 모셔져 있

는 '조상방'이 있는 집을 가리킨다. 한편 큰집은 집터를 의미하기도 한다. 같은 집터에서 집을 개축하더라도 그 집은 여전히 큰집이 된다. 장남이 약간의 우선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큰집이 반드시 장남에게 물려져야 할 필요는 없다. 장남이 육지에 나가 살거나 다른 마을로 이주해서 사는 경우는 물론이고, 마을 안에서 분가하여 사는 경우에도 큰집은 차남 이하가 차지할 수 있다. 장남이 일찍 분가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장남은 큰집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질 수 없고, 부모와 함께 그 집에 끝까지 남아 같이 생활한 아들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큰집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간의 관계에 의해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 즉, 그 집의 가구주가 아버지나, 형이나 하는 것은 큰집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큰집은 조상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다. 조상이 거주하고 있기만 한다면, 가구주가 아들이든, 동생이든 상관없이 그 집은 큰집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조상은 함부로 거처를 옮기지 않는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분가한 형은 물론이고 부모라도 조상의 독이나 위패를 가지고 가서 조상방을 옮길 수도 없다.

모래미의 주택 구조에서 조상방은 마래(마루)에 위치한다. 다음의 그림은 모래미의 전형적인 주택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모래미의 전통가옥 평면 개략도

흑산도의 마래는 서남해 다른 도서의 마래에 비해 면적이 좁은 것이 특색이다(김지민 1989: 102). 이는 타 도서의 주산업이 농업으로서 마래가 저장 공간으로 기능하였는 데 비해 흑산도는 농업 생산물

이 적어 마래가 저장공간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종교적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방들은 바닥이 온돌로 되어 있지만 마래의 바닥은 온돌이 아니다. 바닥을 마루로 간 경우도 있지만 흙바닥을 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근래 들어 주택을 개량하면서 마래의 바닥도 온돌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사람이 거처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조상방은 사람이 거처하지 않으며 조상의 위패가 모셔진 곳으로서 거룩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일상 생활과 관련된 도구는 조상방에 들이지 않고, 제사를 비롯한 종교적인 것, 집안 역사와 관련된 것 등만 조상방에 들인다. 즉, 조상방에 있는 것은 향로, 촛대, 제기 등 각종 제사 용품과 조상의 사진, 가족들의 어렸을 때 사진, 부모나 조상의 유품 등이다.

조상방에서 문과 마주보는 벽에는 나무로 시렁을 만들고 그 위에 '독' 을 모신다. '독' 은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집 모양으로 화려하게 채색을 한 경우도 있다. 독 안에는 여러 신위의 위패(기성이라고도 함)를 동시에 모신다. 시렁에는 독 뿐 아니라 각종 제기가 모셔지기도 하며, 제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제일을 적은 나무 패를 같이 올려 두기도 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시렁 앞에 제상을 차리고 독의 문을 열어 위패가 드러나게 한 뒤 제를 지낸다.

시렁 위에 모셔진 독은 절대 옮겨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독은 한번 모셔진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같은 집터에서 집을 개보수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집이 이사를 하여 독을 옮겨야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피하고자 한다. 장남이 분가하거나 육지로 나가는 경우에도 독을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 장남의 이사나 분가에도 불구하고 독은 부모의 집에, 또는 장남이 원래 살던 집에서 모신다. 박안준씨의 사례는 동생이 형으로부터 큰집을 물려받음으로써 조상방도 함께 물려받고, 따라서 제사까지 함께 상속하게 된 경우이다.

〈사례 2〉

박안준씨는 3형제 중 막내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동안 아버지와 함께 어업을 하던 큰형이 아버지가 살던 '큰집'을 물려받았으며 증조부까지 6분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 그러다가 큰형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진리에 살고 있는 장조카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죽을 때까지 큰집을 지니면서 살고자 하였으나 거동이 불편하여 도저히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조카의 집으로 옮기면서 큰형은 박안준씨에게 '큰집'에 들어와 살기를 요구하였다. 당시 박안준씨는 마을에서 새 집을 지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낡은 집으로 들어가기 싫었으나 큰형은 '조상방을 옮겨갈 수는 없는 일이니 누군가 큰집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동생을 설득하였다. 장조카는 5대 종손이지만 진리에서 셋방을 살고 있어서 이번에 조상방을 옮겨가기도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이번에 옮겨가면 장조카가 이사를 갈 때마다 조상방도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상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 일이 될 것 같아 박안준씨는 큰형이 살던 큰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 이후 지금까지 박안준씨는 형으로부터 큰집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증조부까지 6분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리고 이 큰집을 다시 자녀 중 한 명에게 물려줄 생각이다.

큰집은 통상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도와 생업을 같이 하던 아들이 물려받는다. 큰집을 물려받은 아들은 조상방에 모셔진 모든 조상들의 제사도 동시에 물려받게 된다. 모래미에서는 농사가 적은 관계로 어업이 주 생계방식이며, 어로의 특성상 최소한 장정 두 사람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식 중 한 명이 아버지와 함께 어로활동을 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선주가 선원을 두고 어로활동을 한다. 통상 선주와 선원의 것 분배방식은 선주가 어획량의 절반을 우선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함께 어로 활동을 한 사람들이 균등하게 나눈다. 선주는 선원을 두는 것보다 아들과 함께 어로를 하는 것이

협력도 잘되고 짓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적기 때문에 아들과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아버지를 도와서 어로 활동을 하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배를 비롯한 각종 어구와 함께 아버지가 살던 집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드시 장남이 가계를 계승하지 않고 어느 아들이라도 가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래미의 환경이 장남의 분가를 불가피하게 하기 때문이다. 모래미는 낙도 중 오지라는 열악한 자연환경 때문에 많은 수의 인구를 유지할 수 없다. 가구 단위에서도 장남 중심으로 직계 가족을 이루는 것은 부양해야 하는 가구원 수가 많아지므로 영세한 토지 규모나 불안정한 어업 생산이라는 조건에서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이용권리는 장남 분가를 권장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모래미 마을은 마을 공동 어장을 공동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이 공동어장에서는 해조류를 비롯한 전복, 해삼 등을 채취할 수 있고, 이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⁴⁾ 모래미 해안에서 자라는 자연산 미역은 고가품으로서 가구 소득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또한 전복과 해삼도 고가에 팔려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않다. 마을공동재산은 호를 가진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진다.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결혼 후 분가를 하여 독립된 호를 이루게 되면 공동재산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장남이 분가하지 않고 차남 이하가 분가하는 것보다 장남이 분가하면 마을공동재산에 대

4) 현재 마을 공동 재산을 운영하는 방법은 해조류 채취와 전복 및 소라, 해삼 채취가 약간 다르다. 자연산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주민들이 직접 채취하여 가구의 직접 소득이 된다. 반면 소라, 전복, 해삼 채취는 마을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연간 임대료를 받고 채취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여기서 받은 임대료는 마을 운영비나 개발 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가구의 직접 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일년간 마을의 필요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별로 균등하게 분배하여 주기도 한다.

한 권리를 일찍 가질 수 있어서 유리하다. 토지가 적고 다수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는 환경에서 직계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기에는 장남 가족보다 딸자 가족에 의한 가계 계승이 바람직할 수도 있고, 적어도 장남의 분가에 대한 저항감은 완화시킬 수 있다(유명기 1983: 7). 모래미에서는 장남이 분가하여 다른 마을이나 외지로 나가는 것을 당연한 일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며, 권장할 만한 일로도 인식하고 있다.

정약전 선생이 귀양와서 서당을 세우고 후학을 양성하였다는 것을 마을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모래미 사람들에게 장남이 제사를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유교이념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이다. 장남이 제사를 모시고 집을 계승해야 한다는 유교적 관념과 생태적 적응 과정을 통한 장남 아닌 아들의 가계 계승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대립될 때 흔히 선택되는 대안이 기제사의 분할 상속이지만(유명기 1983: 8), 모래미에서는 낙도라는 생태적 조건 때문에 큰집을 차지한 아들이 모든 제사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모래미에서 분가한 장남은 마을 내 또는 흑산도 내 다른 마을에서 거주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흑산도를 떠나 육지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장남이 흑산도를 떠나 육지에 나가서 살 경우 장남이 제사를 모시게 되면 흑산도에 남은 사람들이 제사에 참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된다. 또한 제사를 분할하여 자식들 사이에 나누는 경우도 각자 모시는 제사에 다른 형제나 친척들이 참가하는 것이 교통문제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마을에 남아서 가계를 계승하는 아들이 모든 제사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모시는 것이다. 마을을 떠난 아들은 마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제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 반면, 마을에 남은 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독점하면서 제사도 모두 책임지는 것이 모래미 제사 상속관행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모래미가 처한 생태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문화적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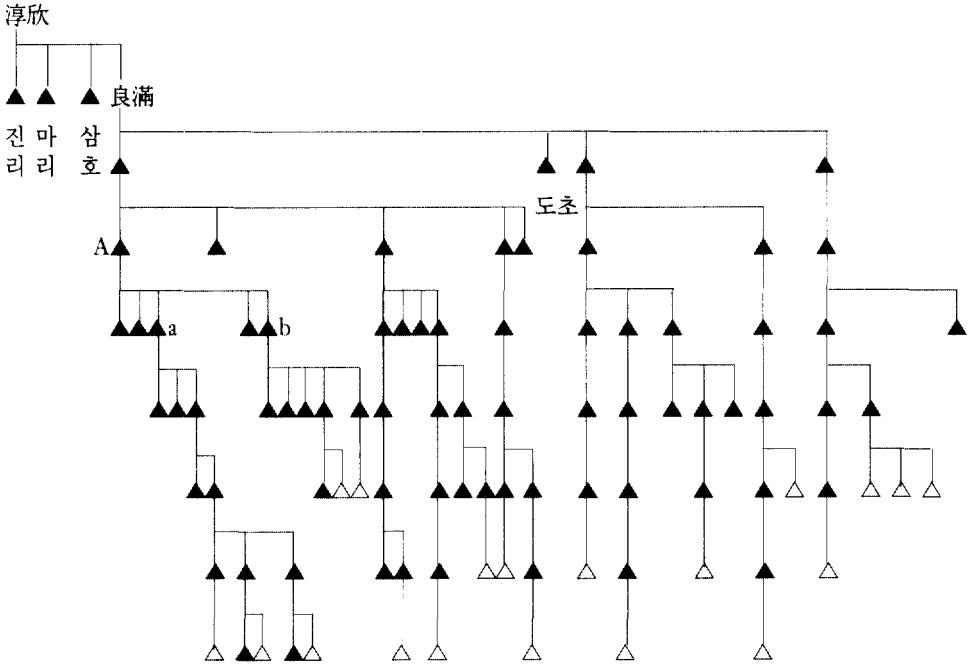
4. 시제와 '내롱'

1801년 정약전이 모래미로 귀양을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모래미에도 200여 년 전에 사람이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족보나 구전에 따르면 이들의 입도조들은 대부분 현재 주민의 5대조 또는 6대조로서, 현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비교적 최근에 마을에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러 형제가 있을 경우 형제 중 한 명만 모래미에 남아 살고 다른 형제들은 육지나 다른 마을로 이주한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 부계혈통집단별로는 가구수가 많지 않다. 그 결과 모래미 마을에 친척집단이 형성되기는 힘들었다. 현재 모래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친척은 함양 박씨이며 이들은 모래미 마을에 거주하는 친척들만으로 시제를 지내고 있으나, 다른 성씨들은 다른 마을의 친척과 공동으로 시제를 모시고 있다.

함양 박씨의 입도조는 중시조로부터 18세에 해당되는 순흔(淳欣)이며, 현재 거주하는 후손들은 24세에서 26세에 걸쳐 있다. 순흔은 4아들을 두었으며, 그 중 장남은 진리, 차남은 마리, 삼남은 영암군 삼호면으로 이주하고 4남인 양만(良滿)이 모래미에 남았다. 양만 역시 4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 차남은 도초로 가고 나머지 3아들이 남았다. 이 세 아들을 정점으로 하여 3개의 '내롱' 이 구성되어 있다.

'내롱' 은 파를 의미한다. 함양 박씨들의 친척관계에서 내롱은 가장 중요한 사회 단위로 기능한다. 친척 내부의 경쟁과 대립은 내롱을 단위로 인식되며, 역할 분담도 내롱 단위로 이루어진다. 모래미에서는 여러 아들이 있을 경우 한 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마을 외부로 이주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모래미의 함양 박씨들은 그 수가 비록 많아도 친척관계는 상당히 멀다. 아래 그림은 현재 거주하고 있

는 함양 박씨들간의 친척관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함양 박씨 계보도

이 그림은 현재 마을에 살고 있는 함양 박씨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기 위하여 간략하게 그린 것이지만 특별히 양만의 장손자인 A의 가계는 후손들의 마을 외부로의 이주를 보여주기 위하여 자세히 그렸다. 양만의 장손자인 A를 중심으로 보면 5형제 중 3째인 a와 5째인 b만 마을에 남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을을 떠났다. a씨 역시 3형제를 두었으나 막내만 남고 나머지는 마을을 떠났다. 그 다음 세대에서도 막내가 남고 장남은 이주하였다. b씨 가계를 보면 b씨도 5형제를 두었으나 그 중 넷째와 막내만 마을에 남고 위로 3형제는 마을을 떠났다. 마을에 남은 넷째 아들의 두 형제 중 장남은 마을을 떠나고 차남이

남았다. 즉, 양만의 장손(A씨)을 기준으로 그 아래 세대를 보면 거의 모든 세대에서 장남은 분가하여 마을 외부로 나갔고, 차남 이하 특히 막내를 중심으로 가계가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래미의 함양 박씨들에게 종손과 종가는 무의미하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큰집'이며, 종가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종손은 누구이며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한편, 입도조가 정착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함양 박씨들 사이의 촌수가 가까울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거주하는 함양 박씨들은 8촌에서 12촌까지의 촌수관계에 있어 비교적 친척관계가 멀다. 이는 잦은 분가와 마을 외부로의 이주로 형제, 4촌, 6촌 등 가까운 촌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반면 가계 계승의 결과로 먼 촌수에 있는 사람들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래미에서 당내와 같이 근친으로 구성된 친척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내롱'은 이러한 친척관계에서 촌수가 먼 사람들도 가까운 친척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먼 친척이지만 같은 내롱에 속하고 있고 내롱 단위의 일에는 서로 협력하기 때문에 같은 내롱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촌수는 멀지만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된다.

내롱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시제와 묘제를 모시는 것이다. 형제 순서에 상관없이 마을을 떠나는 관행으로 모래미에서는 장자, 또는 장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약하다. 가계 계승이나 제사의 상속에서 장남이라고 하여 차남보다 우선권을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함양 박씨들에게 종손 개념은 아예 없다. 입도조의 종손이 모래미에 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모래미의 함양 박씨들은 양만의 종손이 도초로 나간 이래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다. 문장에 대한 개념 역시 없다. 공식적인 문중 조직이 없기 때문에 문중의 임원이나 대표자는 없으며, 다만 사회적 경험이 많은 연장자가 문중의 일에 자문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조상의 시제를 모시는 일은 모래미에 남은 사람들의 몫으로 인지될 뿐, 대표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시제는 세대 원리에 입각하여 소문중들 사이의 서열을 정하는 기능을 한다(이광규 1990: 230). 시제의 대상에 따라 시제를 모시는 주체가 대문중 또는 소문중이 될 수는 있으나 문중은 문중을 외부로 과시하고 내부적으로 단결을 도모하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시제는 문중 단위로 모시며, 시제를 위한 문중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모래미에서는 시제를 내롱 단위로 돌아가면서 모신다. 각 내용은 각자 모셔야 하는 시제들이 있지만 양만을 비롯한 모든 시제를 세 내용이 일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책임을 진다. 내용은 독자적인 집단이기는 하지만 시제를 모실 때는 하나의 단위가 되며 돌아가면서 책임을 지는 방식을 취한다.⁵⁾

함양 박씨의 시제일은 음력 10월 10일이었다. 농사에 주로 의존하던 시절에는 이 날짜가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어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제 날짜는 10월 15일로 바꾸었다. 음력으로 10일은 물때에 의하면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적은 조금으로서 바다에 나가 어로작업을 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로활동에서 한가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리인 15일로 바꾼 것이다.

시제를 돌아가면서 모시는 것 역시 생태적 적응의 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종손이나 장손 개념이 약하고 토지와 같이 물려줄 재산이 부족한 모래미에서 시제를 모든 친척이 공동으로 모시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이 모시는 것에 비해 적응적일 수 있다. 모래미에서 시제를 지낸다는 것은 시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시제 준비를 위해서는 제물을 구입하는 것에서 제물을 장만하는 것까지 많은 노력이

5) 필자가 답사한 비금도에서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시제를 가구별로 돌아가면서 모시고 있었다. 비금도에서도 시제에 대한 책임은 종손이나 문장과 같은 특정인이 지지 않고 모든 친척이 공동으로 지고 있었다. 시제 모시는 순서는 세대를 우선 고려하고 동일 세대에서는 연장자 우선으로 하였는데 향후 20년 후까지 시제 지낼 순서를 정해둔 사례도 있었다.

따르고 비용도 상당히 들기 때문이다.

시제를 위한 경비는 함양 박씨의 경우 '시향발' 이라고 하는 공동 재산을 이용해서 충당하며, 시향발을 가지지 못한 성씨들은 매년 가 구별로 추렴을 해서 충당한다. 과거에는 시향발을 소작 주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시제를 모셨으나 농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어업 중심의 생계를 하면서 시향발을 경작하려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함양 박씨들은 시향발을 팔아 그 돈을 은행에 예치해 두고 이자로 시제를 모시며, 다른 집안의 경우 시향발을 미역 건조장 등의 용도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아 제를 모시기도 한다.

유지 관리해야 할 문중 재산이 많이 있거나 저명한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시제를 계속 지내고 있는 이유는 제사와 시제의 관련성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사의 경우 비용이나 준비하는 수고가 제사를 모시는 개인에게 주어지지만 시제로 모시게 되면 비용이나 수고가 내롱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자식이 모두 육지로 나가 제사를 모시기 힘들게 된 경우는 일찍 제사를 지제하고 시제로 모시고자 한다. 그리고 후손이 있는 경우라도 증조까지 모셔야 하는 제사를 할 아버지대까지, 심지어 부모대까지만 지내고 그 이상은 시제로 돌리려는 경향을 보인다. 박국정씨의 사례는 제사의 대수가 낮아지는 경우를 보여준다.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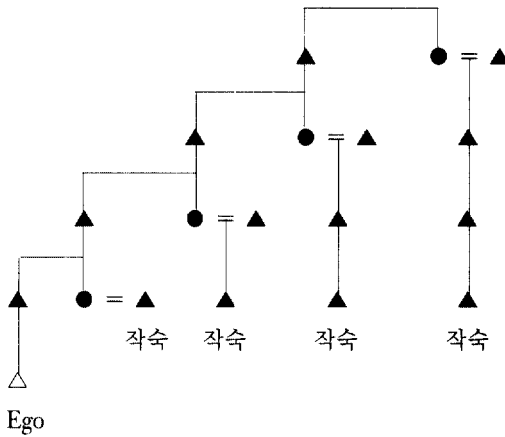
박국정씨 집안은 부모 제사만 모시고 조부모 세대 이상은 모두 묘제로 모신다. 큰집을 지니고 있던 종형수가 조부모와 증조부모 제사를 모시고 있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제사를 모시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자녀들이 모두 육지에 나가서 사는 관계로 큰집을 물려줄 대상도 찾기 어렵게 되자 종형수는 더 이상 제사를 모실 수 없겠다고 선언했다. 자식들이 제삿날 모래미에 와서 제사를 지내준다면 좋겠지만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제사 때문에 흑산도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이고, 나이 든 4촌들이 제사를 위해 큰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그렇다고 옮겨서는 안되는 독을 서울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조상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이었다. 결국 4촌들은 각자 자기 부모 제사만 모시기로 하고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제사는 시제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제사를 묘제로 옮기면 여러 가지로 간편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제사를 지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모래미에서 제사는 증조부까지는 지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제사를 중단하려면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분은 자녀들이 육지에 나가 살아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부모가 유언으로 증조부의 제사를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향으로 보면 아직까지 함양 박씨들의 경우 시제의 대상이 그리 많지 않지만 점차 시제의 대상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⁶⁾

내룡은 모래미 친척조직의 핵심이다. 형제 중 한 명만 마을에 남는 관행으로 현재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촌수는 그들이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한 기간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멀다. 이런 먼 촌수의 친척을 가까운 친척으로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룡이다. 이렇게 먼 친척을 가깝게 인식하게 하는 또 다른 장치는 '작숙(作叔)' 개념이다.

6) 시제가 강화되면서 제사가 줄어드는 것은 진도의 세동리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김창민 2001 참고). 세동리에서는 부모 또는 증조부모 세대까지만 기제사를 모시며, 그 이상 세대의 조상은 모두 시제로 모신다. 이들은 시제를 위한 재산을 상당한 규모로 가지고 있으며, 이 재산이 시제 유지의 물적 기초를 이룬다. 그리고 재산 관리를 위한 친족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모래미와 세동은 물적 기초가 서로 다르면서도 공통적으로 기제사를 간략화하고 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물적 기반과 시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비교문화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작숙

작숙은 고모부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그림 3>에서 보듯이 모래미에서 작숙은 자기 혈통의 여자들이 시집간 집안의 모든 한 세대 위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혹산도 내에서 마을간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경우 처가로 이주하기 때문에 마을 내에서의 작숙관계는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모래미 사람들은 자기와 동일한 혈통의 사람들은 내룽으로, 다른 혈통의 사람들은 작숙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모든 마을 사람들과 가까운 친척관계를 만들고 있다.

마을사람들을 실제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인식하도록 하는 문화적 장치들로 인해 모래미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과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다. 모래미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다른 사람들과의 긴밀한 협력 위에서만 가능하다. 어로 활동은 남자들 사이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럭을 잡는 일이나 멸치를 잡는 일은 3명 이상의 남자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미역을 양식하는 일도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바위미역 채취 권리, 해삼·전복 채취권 등과 같은 마을공동재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마을사람들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모래미 사람들이 어로활동, 전복·바위미역 채취,

미역 양식, 후박나무 껍질 벗기기, 약초 재배, 밭작물 재배, 가공미역 재배, 다시마 양식, 멸치 액젓 만들기, 산채 채취, 민박업, 우렁 낚아 양식장에 팔기 등 매우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생계활동마다 그에 따른 협력관계가 필요해진다. 마을 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연망은 '내롱'과 '작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5. 맺음말

모래미의 제사와 시제는 부모와 함께 생업을 한 아들에게 큰집을 물려줌으로써 제사를 상속하게 한다는 점과 내롱 단위로 돌아가면서 시제를 모신다는 점이 특징이다. 첫번째 특징은 장자 우선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모래미는 생태적 조건상 모든 아들이 마을에 남아 있을 수는 없는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실제 마을의 족보를 분석해 보면 여러 형제가 있을 경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다른 마을이나 다른 섬, 그리고 육지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좁은 경지 면적과 제한된 가용 자원으로 모래미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마을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인구 증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마을에 남은 아들이 큰 집과 제사를 비롯해 모든 것을 물려받는 관행을 가지게 되었다.

장자 우선의 원칙이 약하기 때문에 종손이나 종가집의 개념도 약하다. 종손이나 종가집이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종손이라도 마을을 떠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시제를 비롯한 문중의 일 역시 종손의 의무가 아니라 마을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 시제가 내롱 단위로 돌아가면서 모셔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모래미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인구 유출이 심해지면서 큰집의 중요

성은 줄어들고 내롱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사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을 상징하던 큰집은 마을에 남아 큰집을 물려받을 자녀가 없어지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 큰집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제사를 지내는 대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즉, 큰집을 물려받은 사람의 가장 큰 의무이던 제사는 큰집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반면 내롱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체되는 제사가 많아 질수록 시제의 대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내롱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제로 모시기 위해 문중에 내는 부담금이 증가하면서 내롱의 재산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내롱은 먼 촌수의 친척을 가까운 친척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원리로 작숙, 오촌 등의 개념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내롱에 대한 강조는 마을 내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모래미는 동족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내롱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다른 혈통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마을 사람들 모두와 사회적 연망을 가지고자 하여 내롱을 크게 내세우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시제의 증가와 함께 내롱의 역할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지민

1989 『서남해 도서지역의 전통가옥·마을』, 목포대학교박물관

김창민

1992 “범주로서의 친족: 제주도의 켄당”, 『한국문화인류학』 24, 한국
문화인류학회

2001 “시제를 통해서 본 문중과 친족계: 진도 세등리의 사례”, 『역사문
화학회 편, 『지방사와 지방문화』 4(1), 학연문화사

유명기

1983 “기제사 분할의 의미”,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요지』

이광규

1990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

전경수

1977 “진도 하사미의 의례생활”, 『인류학논집』 3, 서울대인류학연구회

쓰하 다카시

2001 “제주도의 제사 분담”, 『바깥에서 본 제주문화』, 제주학회 제18
차 전국대회 발표요지문, 제주학회

최재석

1979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The Kinship Structure in Huksan Islands: 'Kunjip' and 'Nerong'

Kim, Chang-Min

This article is an ethnographic study of a village in Huksan Islands to analyse kinship structure. This study aims to offer a case for generalizing Korean kinship system by understanding a local type kinship system in my village. I think of kinship system of my village as a result of ecological and economical adap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drawn as follow.

First of all, *Jesa* which is ancestor worship serviced annually at the death day is not inherited to one's eldest son but to one of his son who has lived with him. Because memorial tablets are enshrined in ancestor worship room which is located only '*Kunjip*', inherited house, the eldest son who set up a separated family can not hold *Jesa*. The fact that the eldest son set up a new separated family is a result of ecological adaptation. There are small land and scarce resources, the village could not support many dwellers and it is adaptable to leave elder son his parent family early.

Secondly, '*Nerong*', which is one sort of kin groups works as a very important social unit. The size of patrilineal descent group is very small and kinship relation is relatively far, neither *Dandnae* nor *Munjung* is organized in my village. In this situation *Nerong* which is composed of the members of a branch of *Munjung* functions as a kin group.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Nerong* is to serve *Sije*.

Thirdly, relatively far removed kin are regarded as near of kin by kinship terms like '*Jaksuk*', '*Ochun*'. It is same context of '*Nerong*'. *Nerong* also regards far removed kin as near of kin. And *Jaksuk* is a case to insist that kinship is not consist of consanguine only but consist of relatives also. In my village, the number of consanguines are small but relatives are abundant, so it is necessary to obtain cooperation from relatives. In this context, it is appreciated that such cultural elements like *Jaksuk* are cultural adaptation.